

하나님의 종(從)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4번째 ‘자기정체성’이야기입니다.

앞의 세 가지를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 1)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인식.
- 2)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라는 인식
- 3) 나는 ‘의(義)의 병기’라는 인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식(認識)과 선언(宣言)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필승 전략(必勝戰略)입니다. 오늘은 6장에 나오는 마지막 ‘자기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I. 은혜 아래있으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가?

오늘의 말씀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5절인데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지난시간 본 14절의 <우리가 법아래 있지 않고 은혜아래 있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은혜아래 있으니,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주장(主張)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런 그들의 주장을 인용(引用)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은, 마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입니다.

사악한 인간들이, 이런 꾀변적(詭辯的)인 주장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올바른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실제로 세상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무슨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 우리는 법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이 논리(論理)는 오래된 기독교이단인 영지주의자(靈知主義者)들의 논리와 유사합니다. 그들은 영(靈)이 구원받았으니, 육(肉)은 원래 죄를 짓게 되어있으므로 별로 신경쓸 필요없다는 이분법적(二分法的)인 논리(論理)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이단(異端)들이 교계(敎界)내에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준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도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God forbid.**는 말로 단칼에 자릅니다. 사실 그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인 것입니다. 원래 이 적반하장은,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자,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도둑잡아라”고 큰 소리를 치는, 민담(民譚)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셨는데, 이제 은혜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적반하장’이고, ‘물에서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 놓으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 문제를 다른 각도(角度)에서 봅니다. 그는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서 찾

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여기서 이 문제를 <우리가 누구의 종(從)이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에는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은 죄의 주체인 마귀사탄의 아래에 있는 것이고, 곧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해석합니다. 범죄의 ‘메가니즘’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신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죄의 종’이나 ‘하나님의 종’이나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짓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움을 선택한 다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당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는 절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멸쓰를 받은 로마교인들에게 적용(適用)하면 어떠했을까요? 17절을 봅시다.

II.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는 여기서 감사(感謝)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감사(感謝)에 대한 7구절 중, 중심구절에 해당하는 <감사의 구절>입니다 (1:8, 1:21, 6:17, 7:25, 14:6, 15:9, 16:4)

이 말씀은, 위에서 주장하는 주장들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말입니다. 이들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信實)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는 분들을 봅니다.

신약성서의 시므온과 안나에 해당하는 분들, 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와 목사의 목회를 위해 기도하며 주안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성령충만한 삶을 살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경지에 들어가기 쉬운 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는 다 그 과정(科程)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독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우리는 ‘의(義)’에게 종으로 내주라는 바울의 강력한 권면을 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우리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야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종이 되어야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종이 되는 것 여러분은 좋아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다 자유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신을 종으로 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많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III.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제국 전체 인구는, 약 5천만에서 6천만명으로 추정되고, 당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인구수 100만명 정도의 당시대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가장 귀한 신분은 전체인구의 7-8%에 해당하는 로마시민권자였으며, 그 다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유민인, 평민(平民)이었습니다. 그 중에 10-20% 혹자는 1/3이 노예(奴隸)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시민권을 가진 시민(市民)들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투표권, 공직진출권, 재산권, 재판 및 항소권, 고문과 채찍을 당하지 않고, 반란에 해당하는 일 이외에는 사형당하지 않는 등의 특권이 있었고, 자유민(自由民)들도 권리가 있어서, 거주, 이주, 경제활동과 일부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들은, 위의 모든 권리(權利)가 없었습니다. 재산취득, 결혼, 거주(居住)의 자유가 없는, 주인의 소유물(所有物)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사유재산(私有財産)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학대하거나 죽여도 법적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이들은 집안일, 농장, 광산, 모든 사회의 봉사와 심지어는 검투사 등의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다 잡히면, 낙인(烙印)이 찍히고, 더욱 가혹한 처벌(處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결혼(結婚)과 가족(家族)을 이룰 자유도 없었으며,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노예는 운이 좋아 해방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평생 억압(抑壓)과 절망(絶望)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면,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텐데요. 시민도 자유민도 싫어할 것이고, 종들은 더욱 더 종이라는 말에 ‘신물’이 날 수 밖에 없는 용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시대에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은 ‘종(從)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바울은 로마서를 쓰자마자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을 아시는 지요,. 로마서 1:1절로 되돌아 가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볼수 있는 것은,

1. 사도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 종은 종인데, 그의 임무가 하나님이 복음(福音)을 위하여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점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빌2:5-8절입니다.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예수님은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었으면서도 종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자신이 그 예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않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이 종이신 예수님에게서 신앙을 배웠으며 깊은 신앙의 비밀을 맛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으로 오신 예수님과 바울에게서 <종(從)의 도(道)>를 배워야 합니다.

위에서 우리는 로마시대의 종(從)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종에게는 권리(權利)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놀라운 권리(權利)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을 따라간 것이 사도바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습니다. 위에서 읽은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 여기에는 이러므로가 있고, 또한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이러므로는 예수님에 주신 상급이고 그러므로는 우리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종도심이 우리에게도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NIV엔 둘다 therefore입니다.) 그러니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우리의 상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의 ‘그러므로’가 말하는 것은, 바울이 사랑했던 초대교회, 빌립보교회들에게 약속한 것은, 우리가 단순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종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회(機會)로 보고, 소망(素望)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종의 상급에 대한, 또하나의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봅시다.

21.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주권(主權)을 행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의 정욕을 품고, 살고 행하기 때문에,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권을 쥐지 않고, 내가 나의 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이 문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1. <이미 얻은 거룩함>과 <열매로 얻는 거룩함>에 대한 것입니다.

1) 우린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과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하였고,

히브리서 10:10 “이(하나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2) 그런데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22)

마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나무>가 심겨졌는데, 그 나무가 잘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거룩함이 유실수에 비교가 된 것입니다. 사과나무나 무화과나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를 맺게 되어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말입니다.

* 그런데 이 열매를 어떻게 얻는다고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종(從)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여기서 우리는 거울을 보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종인 내가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보통 종(從)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종(從)입니다.

이런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종(從)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REAL한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REALITY 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종에 대해 표현하는 세 가지 묘사(描寫)가 나옵니다

1.<순종(順從)의 종>, 2.<의(義)의 종>, 3.<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다, 아름다운 묘사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린 다짐하였으면 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린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사람과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삶에서 주신 우리의 사명들이 있어서 섬기며 삽니다. 가족들로부터 이웃들, 그리고 그리스도안에서의 형제들을 섬기며 삽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분 주님만 계십니다. 우리는 그에게만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다른 사람은 전혀 상관하지않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후4: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主)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從) 된 것을 전파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알송달송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다른사람을 주로 섬기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려 한 다해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들을 경배하고 섬기진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섬길 뿐입니다.

IV. 종들의 결말 (22-23)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결말(結末)에 대해 살펴보십시오.

오늘의(6장의)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22.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2. 영생의 차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1) 하나는 거저주시는 영생입니다. 그게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恩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 은사란, 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 선물을 내려주는 것이 은사입니다.

* charisma라는 말인데 Gift, grace-gift, spiritual gift.

- 2) 또 하나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생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에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할 존재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우린 이미 영생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5:24절대로, ‘영생을 얻었고’ 즉 현재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충만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일상을 우리가 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린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따라, 우리는 사람도 섬기는 종이기도 합니다.

종이 되어야 영적생명이 충만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초대, 종으로의 초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과 천배 만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그들의 밥이며 쓰다 버릴 도구입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보살피지도 않고 다만 부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도 계속 주십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을 이 지상에서 살다가 영원을 누리는 안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린 오늘 말씀대로,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거룩함과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